

2018

정책연구 2018-1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김재구 · 최성환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1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김재구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성환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현수 ·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강태원 · 군산대 물류학과 교수

연구관리 코드 : 18JU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5
1. 연구 기대효과	5
2. 연구체계	6
제 2 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현황	9
제 1 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9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9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용	12
제 2 절 추진상황 및 관련정책 현황	17
1. 추진상황	17
2. 관련정책 현황	18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28
1. 요약	28
2. 시사점	29
제 3 장 동북아 주변국 관련 및 유사 정책 동향	33
제 1 절 분석 자료 범위	33
제 2 절 동북아 국가별 글로벌 경제 및 공간정책 분석	34
1. 중국	34
2. 러시아	40
3. 몽골(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48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54
1. 요약	54
2. 시사점	55

제 4 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59
제 1 절 새만금사업의 주요 내용과 국가적 가치	59
1. 새만금 기본계획	59
2. 새만금사업의 주요내용	62
제 2 절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협력 분야 설정	68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주변국의 관련정책 시사점	68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새만금의 지위 제고	69
3. 연계협력분야 설정	71
제 3 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72
1. 교통물류 분야	72
2. 에너지 분야	78
3. 산업교류 분야	81
제 5 장 연구종합	87
제 1 절 연구종합	87
제 2 절 향후 과제	88
참고문헌	91

■ 표목차 | Contents

〈표 2-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의 주요 예상 프로젝트	15
〈표 2-2〉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19
〈표 2-3〉 신남방정책의 3P 전략	27
〈표 3-1〉 일대일로 추진현황	37
〈표 3-2〉 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분야(5통)	38
〈표 3-3〉 선도개발구역 현황	43
〈표 3-4〉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비교	45
〈표 3-5〉 몽골의 주요 국가정책별 사업	48
〈표 3-6〉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 인프라 발전 분야 주요 프로젝트	49
〈표 3-7〉 중·몽·러 경제회랑의 국경 물로 및 세관업무 분야 주요 프로젝트	51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체제도	6
(그림 2-1) 동북아 책임공동체의 구조	10
(그림 2-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 및 남방정책과의 관계도	11
(그림 2-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	13
(그림 2-4) 환황해 경제벨트 구축 방안	13
(그림 2-5)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 방안	14
(그림 2-6) 접역지역 경제협력벨트 구축 방안	15
(그림 2-7) 하나의 시장 형성	16
(그림 2-8) 하나의 시장형성 방법	16
(그림 2-9) 추진상황	17
(그림 2-10) 역대정부의 북방정책	20
(그림 2-11)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추진체계	22
(그림 2-12)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동부권역	23
(그림 2-13)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중부권역	24
(그림 2-14)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서부권역	25
(그림 2-15) 북방경제협력 구상도	25
(그림 2-16) 신남방정책 지역과 동북아	26
(그림 2-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연계 키워드	29
(그림 3-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안)	34
(그림 3-2) 일대일로 연선 6대 경제회랑	35
(그림 3-3) 유라시아 대륙교량 노선도	36
(그림 3-4) 신동방정책 추진 구조	40
(그림 3-5)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극동·시베리아 지역	41
(그림 3-6)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극동·시베리아 지역	44
(그림 3-7)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연해주 인근 지역 확대)	46
(그림 3-8) 프리모리예-1 철도회랑	50

(그림 3-9) 프리모리에-2 철도회랑	50
(그림 3-10) 북부 철도 회랑	50
(그림 3-11)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AH-4)	50
(그림 3-12) 동부 자동차 도로망	50
(그림 3-13) 동,서,북부 및 중앙 철도회랑 종합	50
(그림 3-14) 만저우리, 얼렌, 수이펀허 변경경제협력구	52
(그림 3-15) 중·몽·러 다우리아/다구우르 보호구역	52
(그림 3-16) 중·몽·러 초국경 관광 노선 개발 구상	53
(그림 3-17) 동북아 주변국 중심 키워드	55
(그림 4-1) 새만금개발 MP 변경 비전 및 목표	60
(그림 4-2) 동북아에서 새만금 위치	61
(그림 4-3) 국토발전축상에 새만금 입지여건	61
(그림 4-4) 새만금 MP 변경상의 권역별 개발방향	63
(그림 4-5) 한중산업단지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65
(그림 4-6) 새만금 주요 인프라 시설	67
(그림 4-7) 새만금의 지리·경제적 위상과 가치	70
(그림 4-8) 연계협력 분야 설정	71
(그림 4-9) 새만금과 중국 일대일로 시점과의 연계	72
(그림 4-10) HHTT사의 하이퍼루프 캡슐 모습	73
(그림 4-11) 동서횡단 철도 연결	74
(그림 4-12) 동서축 및 강호축 구상	75
(그림 4-13)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	76
(그림 4-14) 새만금과 국내외 연계 구상 종합	77
(그림 4-15)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79
(그림 4-16)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79
(그림 4-17) 새만금 연계 전력망 구상(안)	80
(그림 4-18)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개념도	82
(그림 4-19) 독일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파크' 전경	83

1

장

연구의 개요

-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체계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정부는 분단으로 제한된 경제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 제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경제 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이 핵심
 - 3대 벨트는 환동해 경제벨트, 환황해 경제벨트, 남북 접경지역 평화벨트로 구성
 - 하나의 시장은 사람과 물자, 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시장협력을 의미
- 통일부는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 수립 추진 포함
 - 통일부는 이미 한반도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협의체, 국책 연구기관 협의체 등으로 구체화 작업 진행
 - 신경제지도 TF는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신경제지도 구상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을 지원
 -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과 관련,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동동방 정책과의 전략적 협력방안도 모색
 -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를 포함
-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역할 제시를 통해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새만금의 가치 확대 필요
 -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의 비전으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산업간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 새만금은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양국간 논의된 바 있으며,

한중FTA 협약을 통해 새만금을 한국 유일의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기대효과에는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명시
 - 따라서 새만금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속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라는 비전달성과 함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현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위한 연계 구체화 필요
- 본 연구는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 따라서 국가간 산업간 협력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현황 검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 추진상황 및 유사 정책 검토
- 동북아 주변국 관련 및 유사정책 검토
 - 분석자료 범위 설정
 - 동북아 국가별 경제 및 공간 전략 검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분야 설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2. 연구 방법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 글로벌 경제협력 및 대북정책 관련 문헌 검토
 - 동북아 국가별 글로벌 경제 정책 및 공간 정책 관련 자료 조사
 - 국가별 경제개발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나. 전문가 자문방법

- 전문가 인터뷰
 - 동북아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자료 확보 및 시사점 도출
 -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간적 기능 및 역할 설정에 대한 방향 설정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범위 설정 및 연계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도출된 과제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논리적 당위성 보완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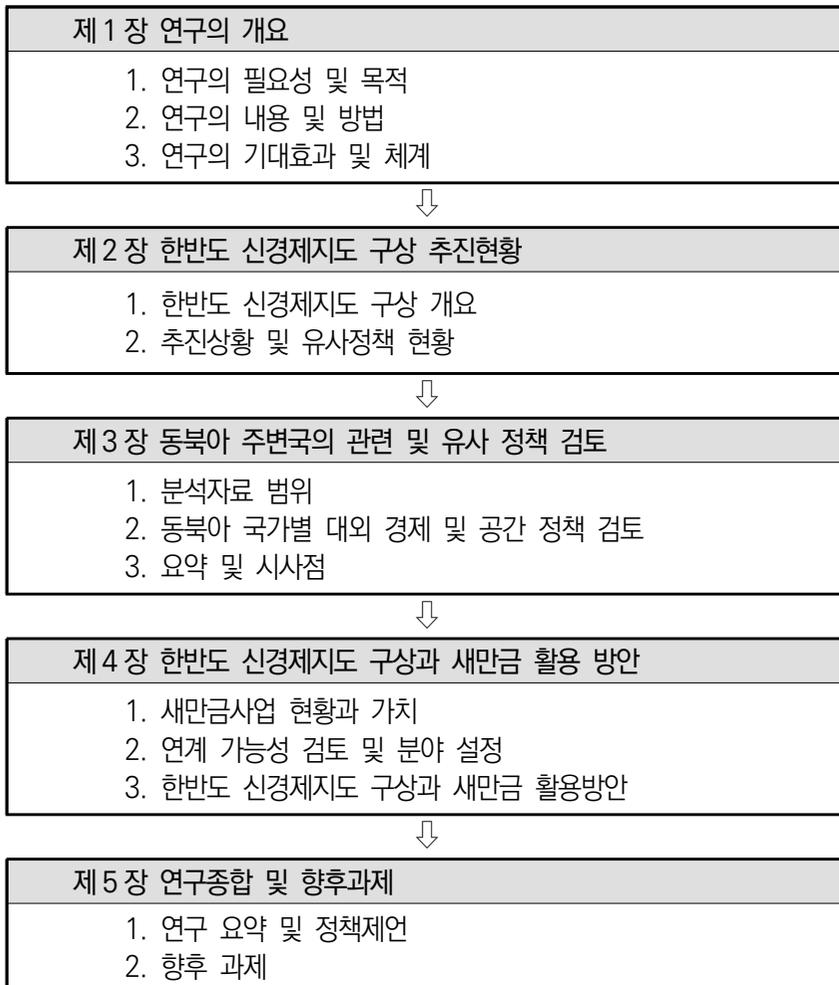
1. 연구 기대효과

-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역할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당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가능
- 미래가치 증대와 함께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구체화에 기여 가능하며, 특히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경험허브를 위한 비전 달성 기대

2. 연구체계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됨

- 2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3장에서는 주변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
- 4장에서는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5장은 종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



(그림 1-1) 연구체계도

2

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현황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 제 2 절 추진상황 및 관련정책 현황
 -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제 2 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현황

제 1 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¹⁾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대북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언급되었으며, 경제 통일 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를 기초라는 개념에서 출발²⁾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목표 중 대북정책과 연관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정책목표에서 제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는 다시 3개 전략과 16개 과제로 구성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두 번째 전략인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
 - 3개의 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구성
 - 그중에서 두 번째 전략인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는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이 포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남북한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³⁾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와 연결하여 경제 시장을 확장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목표
 -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 활력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 활로 개척과 남북의 경제통일 기반 구축이 주요 목표
 -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을 유라시아와 태평양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달성이 중장기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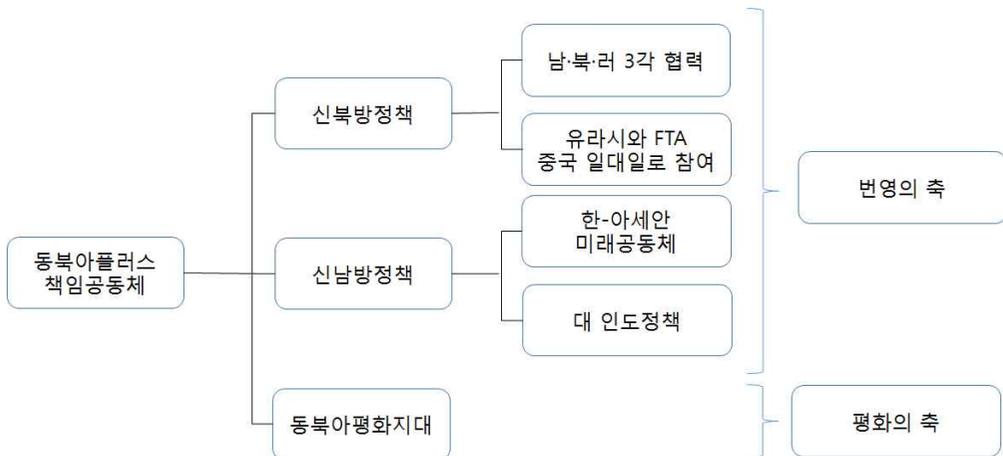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을 바탕으로 정리

2) 임을출, 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 내용 및 평가”, 세종정책포럼: 서울:서머셋펠리스.

3) 이규창 외 9인, 201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p.90.

○ 더 나아가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주변국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과 연계⁴⁾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지역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 이를 위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과 남방과 북방지역을 잇는 “번영의 축”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다시 구분⁵⁾
- 먼저, 평화의 축은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과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둔 동북아 평화지대를 의미
- 신남방정책은 해상전략으로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 추진
- 신북방정책은 대륙전략으로서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 -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 추진



자료: 이재현, 2018. “문재인 정부의 대 아세안 신남방정책-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이슈브리프』, 4월호:
(그림 2-1) 동북아 책임공동체의 구조

4)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을 바탕으로 정리

5) 이재현, 2017.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아세안을 통한 외교다변화”, 『안보현안분석』, Vol.138호

-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 중 대륙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⁶⁾
 -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결하는 가교로써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



(그림 2-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 및 남방정책과의 관계도

6)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7.9.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이란?”, 통일한국, <http://unikorea21.com/?p=14203>.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용⁷⁾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90번 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제시된 정책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동력확보가 필요하고, 남북경협 의 중요성 재평가와 남북경협 추진환경의 변화 등이 추진 배경
 - 본 구상은 “한반도 경제통일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북한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
- 본 구상의 의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 실현, 경제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지향, 대북통일정책과 국가발전정책의 융합, 한반도 시대의 개막 그리고 H빔 세계전략으로 구분 가능함
 - 이러한 의의는 주변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고, 역대 ‘평화통일’ 담론의 통일정책에서 경제통일로의 전환,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를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 위상 재정립 등으로 요약
-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내용은 3개의 경제벨트를 구상하는 “H빔 세계전략”과 하나의 시장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H 빔 세계전략을 한반도를 3개의 경제벨트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3대 경제협력벨트는 먼저 성장거점을 구축, 집적효과로 주변지역 성장촉진 그리고 연계망을 구축하여 더 넓은 지역까지 확산하여 한반도 경제권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구상
 - 여기서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은 거점개발(성장거점구축)을 통하여 개발을 집중하고, 이를 주변지역으로 확대(집적효과, 연계망 구축)시키는 성장거점개발방식을 활용

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이창규 외 그리고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그림 2-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

- 환황해 경제벨트는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동부연안지역을 포괄하는 경제 벨트를 구축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연계망 구축이 핵심으로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수도권과 평양, 남포권을 연결하고 있음
- 교통·물류협력분야는 경의선 철도·도로중심으로 교통·물류망 확충, 해로·항공 포함, 복합물류망 구축을 구상, 산업협력분야는 개성·해주권·평양·남포권·신의주권 산업연계망을 구축
- 환경협력으로는 북한지역 산림 조립(황폐지 복구),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비책 마련, 관광협력으로는 산업연계 관광추진, 남·북·중 크루즈 관광추진을 구상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그림 2-4) 환황해 경제벨트 구축 방안

○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중국동북부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일본 서부연안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와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연계망 구축방안임

- 교통·물류 협력분야는 동해선 철도·도로중심으로 환동해 교통·물류망 확충, 러시아 TSR과 유라시아와 연계망 구축 구상이 핵심이며, 에너지협력분야는 신포·단천 지역의 자연에너지 공동개발 및 러시아, 중국과의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구상
- 산업협력으로는 특구 및 경제개발구 공동개발 및 북·중·러 접경지역으로 산업협력 확대 구상. 관광협력분야는 국제관광벨트 구축(설악~금강산~원산~묘향산~백두, 개마고원)을 구상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방안”, KINU 국내학술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그림 2-5)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 방안

○ 접경지역 경제협력벨트는 DMZ, 민통선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가치보전, 친환경적 개발, 남북 교류협력의 중계지로 개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핵심 내용임

- 교통·물류협력분야는 남북간 접경지역의 통과지역관리, 교통·물류 동서 연계망 구축과 함께, 관광협력분야로 생태·환경·평화 Green 3각 축의 남북평화관광벨트 조성
- 환경협력분야는 DMZ 평화의 숲 조성 및 생태계 공동보전관리체계구축 구상, 농축수산협력분야는 DMZ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단지 개발, 동서 해안지역에 평화수역, 공동어로 등을 통한 어업협력기지 구축을 포함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그림 2-6) 접역지역 경제협력벨트 구축 방안

〈표 2-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의 주요 예상 프로젝트

3대 벨트	부문	주요 예상 프로젝트	
환황해 경제벨트	교통·물류	경의선 철도, 해로, 항공, 복합물류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산업단지 및 경제 특구 개발 ■ 중심산업협력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양 경제협력벨트 ■ 연계망 구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안 고속교통망, 복합물류망 구축
	산업	개성·해주, 평양·남포, 개성 산업연계	
	환경	황폐지 복구, 미세먼지 공동대책	
	관광	산업연계관광, 남·북·중 크루즈	
환동해 경제벨트	교통·물류	동해선, 철도, TSR와 유라시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에너지산업특구 및 관광특구 공동개발 ■ 중점관광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속초, 원산 관광협력 ■ 연계망 구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안 교통망과 복합물류망 구축
	산업	특구 및 경제개발구 공동개발 북·중·러 접경지역 산업협력 확대	
	에너지	신포·단천지역 자원에너지 공동개발 러시아 중국과의 에너지 연계망 구축	
	관광	국제관광벨트구축(설악, 금강~백두개마)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	
접경지역 경제벨트	교통·물류	교통, 물류 동서연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지역 생태평화관광특구 ■ 생태평화관광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고성 ■ 생태평화관광특구의 구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통선 외곽지역으로 확산
	관광	생태, 환경, 평화 Green 3각축 평화관광벨트	
	환경	DMZ 평화의 숲 조성	
	농축수산	DMZ 친환경 농업단지 개발 동서 해안 평화수역 등 어업협력기지구축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최종목표인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시장과의 통합을 지향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그림 2-7) 하나의 시장 형성

- 하나의 시장형성을 위하여 “기업들의 투자협력 환경 조성”, “남북한 시장 연계를 위한 거점구축” 그리고 “부분별 시장통합 및 확산”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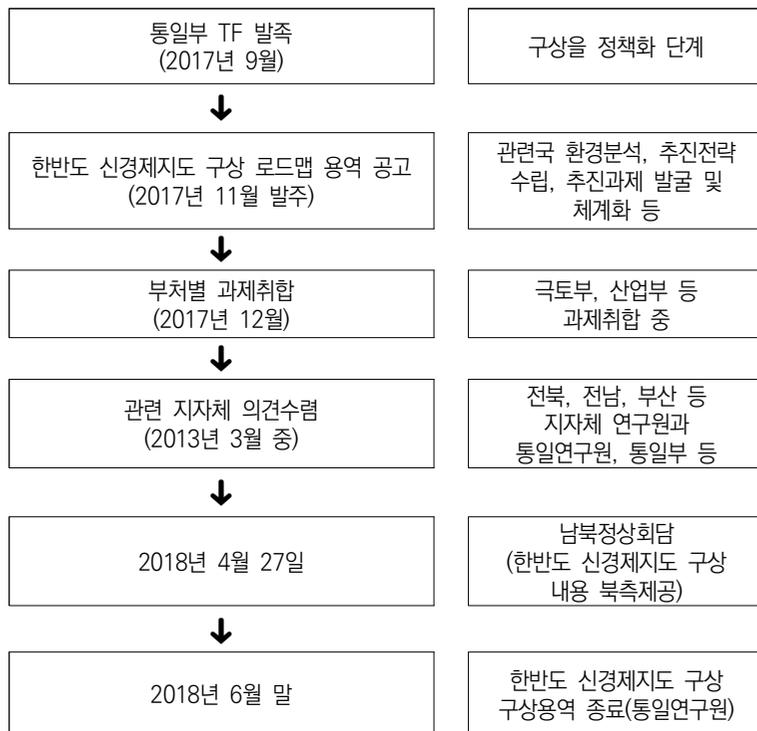
자료: 임강택,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방안”, KINU 국내학술회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그림 2-8) 하나의 시장형성 방법

제 2 절 추진상황 및 관련정책 현황

1. 추진상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책 추진상황은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통일부에 TF팀이 발족되어 구상을 정책화 시킴
- 현재까지의 정책 추진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2-9) 추진상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연구는 2018년 6월말에 종료가 될 예정임. 종료되는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및 틀을 설정하는 것임⁸⁾

8) 과제 종료 후 연구결과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결정(본 내용은 통일부 TF 담당자와의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

2. 관련정책 현황⁹⁾

가. 남북협력사업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유사한 정책으로는 남북한 협력사업을 사례로 확인하도록 함
- 남북협력사업은 크게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북한 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 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규모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
 - 사회문화협력사업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 ·과학·체육, 출판, 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의미
- 남북협력사업은 1997년 3건에서 2007년 188건으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65건, 2009년 23건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남북협력 사업의 승인실적이 없음
 - 2004년 이전에는 사회문화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경제협력사업이 급증
 -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모두 중단하였으며, 2016년 2월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
 - 교역의 규모는 1992년 1억 7천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27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23년간 약 16배 증가

9) 토지주택연구원, 2017. 「북한 토지주택 리뷰」, vol1(1):9~35의 내용을 재정리

〈표 2-2〉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구분	'91~'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7	계	
경제	민간경협	3	6	0	2	5	1	2	6	10	4	6	9	1	19	-	-	19	-	-	-	93
	승인	-	-	-	-	-	-	-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	308
	개성공단 신고	-	-	-	-	-	-	-	-	-	-	-	-	12	11	18	22	10	2	7	-	82
사회문화	3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	1	-	-	1	2	-	159	
계	6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8	34	6	12	-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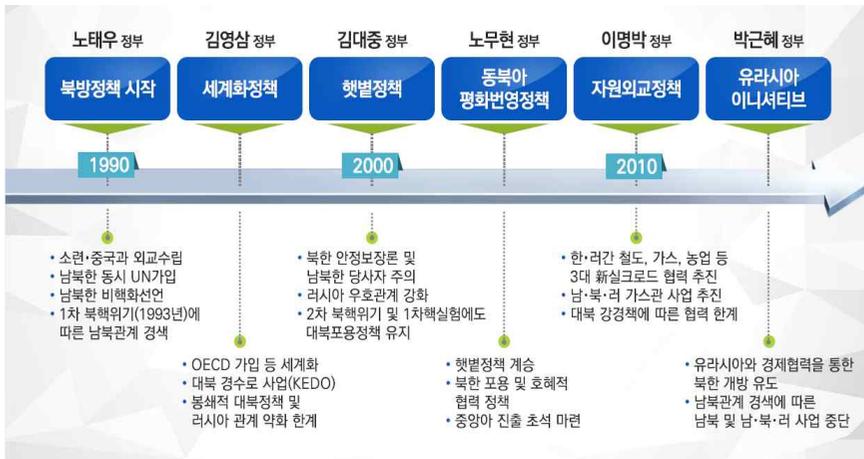
주: 협력사업신고제 시행(2009.7.31.):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총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자료: 통일부(2016),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2016년 7월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2017. 「북한토지주택리뷰」, Vol1(1): p16을 재인용

- 전체적으로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90년대 중반부터는 남북 교역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이 증가하였음
 - 경제협력은 물품을 단순 반출입하는 일반교역에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제품을 재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기계·설비 등을 투자하는 단계로 발전
- 남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가동을 기점으로 질적·양적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경협은 악화되었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의 남북경협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도로, 철도의 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해 경협의 토대가 구축된 시기
 -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으로 상징되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08년도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5·24조치 등으로 경협이 사실상 중단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핵폐기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경원선 연결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등의 의지를 보였으나, 제4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마저 중단 조치

나. 신북방정책¹⁰⁾

1) 역대정부의 북방경제협력정책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다양한 북방경제 협력 정책과 더불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와 안보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추가적 정책으로 풀이할 수 있어 역대 정부의 북방협력사업에 대한 분석 필요
- 북방경제협력은 노태우 정부 이래로 거의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사업 임¹¹⁾. 문재인정부에서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음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2-10) 역대정부의 북방정책

- 역대정부의 북방정책은 정치외교, 경제협력, 남·북·러 협력, 추진체계 등에서의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정치외교: 북한 등 국제정세에 따라 북방정책 기조변화로 지속적 정책추진 한계

1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7.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11)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이슈브리프」, 3월호: 1~17

- 경제협력: 일부 지역·국가 중심으로 초기단계성과, 투자보다는 교역, 에너지·인프라 중심 협력으로 일방적, 단편적 경험진행
- 남·북·러 협력: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협력사업이 번번이 중단. 결국 다수의 사업이 남북관계에 종속됨

2) 북방경제협력사업(신북방정책)

- 북방경제협력사업은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북방 주변국과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제·지리적 추진 배경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
 - 또한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그리고 중견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고대로부터 이어진 역사·문화적 유대가 배경을 둠
 -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신동방정책’ 아태지역 협력강화’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몽골의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누들리 줄’ 추진 등 개방 움직임 가속화로 북방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기대 확산
- 신북방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 추진방향은 9-Bridge 전략,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경험확대를 위한 제도·금융인프라 구축, 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및 교류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으로 구성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2-11)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추진체계

- 특히 9-Bridge 전략은 단기성과창출 사업과 장기성과창출 사업으로 구분되며, 단기성과창출 사업은 수산, 농업 등의 사업이며, 장기성과창출 사업은 전력, 철도 등의 사업으로 구성
 - 9-Bridge 전략은 수산(어항·물류·가공시설 조성), 농업(연해주 농업기지 구축, 곡물 저장시설 설치(사일로)), 전력(한-중-몽-일-러 광역전력망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철도(시베리아 횡단철도(TSR)운송 활성화 및 TSR과 남북철도(TKR) 연결), 북극항로(북극항로 상업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 가스(LNG 등 가스 협력 확대, 향후 남북러 가스관 연결), 조선(극지이동 쇄빙 LNG 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 향만(극동지역 향만 건설/현대화), 산업단지(연해주 공단 조성 등)로 구성
- 지역별 전략은 크게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구분하여 수립되며, 그중에서 동부권역은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성 지역을 대상
 - 한·러 협력을 통해 극동개발 협력사업 추진(9-Bridge 전략에 따른 9개 분야의 사업 추진), 한·러 공동으로 신규사업 발굴 병행(ICT, 교통, 친환경, 호텔·리조트,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등)
 -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 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AIIB, GTI 등을 활용, 몽·중·러 회랑과 연계한 사업발굴/개발), 중국(TCR)·몽골(TMGR) 횡단 철도 이용 활성화(향후 남북철도 연결)
 - 한·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나진-하산 물류사업 재추진 준비, 가스·철도·전력 분야 남북러 연결사업 추진방안 마련 준비)

동부권역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지역

- 동북아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
- '신동방정책', '몽·중·러 경제회랑'(일대일로)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유도 가능

경험강화를 통한 한·러간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 **한·러 협력을 통해 극동개발 협력 사업 추진**
 - 9-Bridge전략에 따른 9개 분야의 사업 추진
 - 한-러 공동으로 신규사업 발굴 병행
 - * ICT, 교통, 친환경, 호텔 리조트,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
- ▶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 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 AIIB, GTI 등을 활용, 몽·중·러 회랑과 연계한 사업 발굴/개발
 - * 훈춘 물류단지 등 기중단된 사업 재추진 검토
 - 중국(TCR)·몽골(TMGR)횡단철도 이용 활성화, 향후 남북철도 연결
- ▶ **한·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 남북관계 상황 등 고려,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추진 준비
 - 가스·철도·전력 분야 남북러 연결사업 추진방안 마련 준비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2-12)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동부권역

○ 중부권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을 대상,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확대

-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강화(석유화학, 도로/공항, 열병합발전소 등, 개발금융 지원 강화 및 정부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
-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 확대(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 고려)
- 정부간 협의체 등을 활용, 민간지원 및 정부협력 강화(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대 중앙아 협력기반으로 활용, ODA를 활용, 교육, 보건의료 및 공공행정 분야 지원)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2-13)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중부권역

- 서부권역은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지역이며, 역내 기초 기술과 우리 기술을 접목시켜 신성장모델 창출을 목표
 - 러시아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선진화 정책 추진, 우크라이나 ICT,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높은 기술력 그리고 벨라루스의 서비스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우리의 산업 및 기술과 접목
 -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연구기반을 활용한 기술협력 및 공동투자, 한·러 과학기술협력 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 기관으로 조성(연구지원 뿐만 아니라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지원) 등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2-14)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서부권역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2-15) 북방경제협력 구상도

다. 신남방정책¹²⁾

-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내용 중 하나이며,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해상전략
 -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경제 및 외교 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경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는 대외전략
 - 따라서 앞서 언급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대륙전략), 일로(해상 전략)와 유사한 전략으로 구분 가능
 - 신남방정책 대상지역은 아세안 10개국(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인도가 포함



자료: 강명구, 2018. “신남방정책 구상과 경제·외교적 의의”, 산은조사월보, 3월호에서 인용
(그림 2-16) 신남방정책 지역과 동북아

- 신남방정책의 추진 전략은 “3P” 전략이며, 각 비전별 추진과제는 아래의 <표 2-3>와 같음
 - 3P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의미함
 -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 700만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1,400만달러로 확대하고 현재 100만달러인 한·메콩기금을 300만 달러로 확대

12) 강명구, 2018. “신남방정책 구상과 경제·외교적 의의”, 「산은조사월보」, 3월호: 64-75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인용하였음

- 또한 한·아세안 인프라펀드는 1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내에서 2022년까지 추가 조성계획

〈표 2-3〉 신남방정책의 3P 전략

구분	비전	추진과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외교 정례화 • 인적문화 교류사업 확대 • 문화교류 • 공공외교 확대 • 한류와 문화-관광-산업 연계 등
상생번영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상호번영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확대 • 첨단기술 공유 •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 기술훈련 • 무역불균형 해소 등
평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구축,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 북핵문제 관련 협력 •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자료: 강명구, 2018. "신남방정책 구상과 경제·외교적 의의", 「산은조사월보」, 3월호: 64-75

- 신남방정책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에 '신남방정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산업 통상부는 산업연구원에 '신북방·남방센터' 설치 추진
- 신남방정책에 대한 경제·외교적 의의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지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기존 주변 4강 (미·중·일·러)와 동북아지역에서 신남방지역으로 까지의 확대로 볼 수 있음
 - 신남방지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대상 지역으로 17년 한국의 대외 교역 중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역흑자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높은 1위 지역
 - 신남방지역의 국가들과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여, 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 하려는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구상' 및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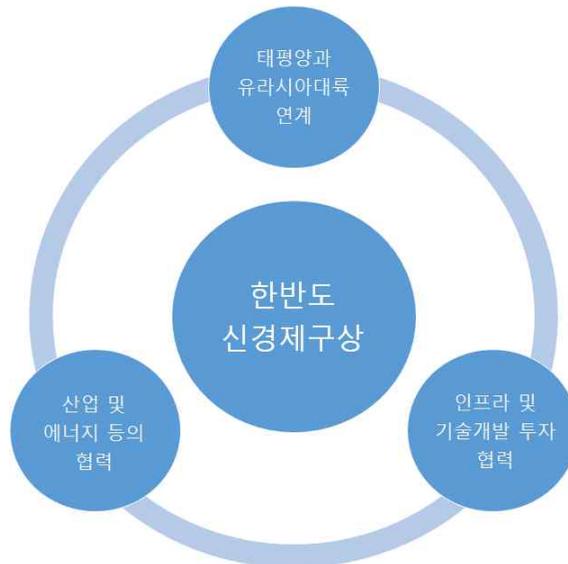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본 장에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대북 협력사업,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경제 협력을 이루어 하나의 시장을 형성시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3개의 경제 및 평화협력벨트 구상을 제시하였으며, 각 구상은 북한의 중요거점 개발을 시작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및 남한 및 중국, 러시아 등의 지역까지 연계·확산시키는 것이 내용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한 대륙지역(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 중앙아시아 및 몽골,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과의 교통·물류의 연계, 에너지 협력, 산업분야 등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10개 국가와 인도를 대상으로 한 해상전략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통·물류, 산업 등의 협력등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시사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의 관련정책을 살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쪽의 대륙과 남쪽의 해상을 연계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북으로는 러시아,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와 남으로는 아세안10개국과 인도를 연계하는 구상임
-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피하여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시키려는 전략으로 북쪽지역과의 교통·물류, 산업 및 에너지 등의 협력과 남쪽으로는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에 협력하여 상호번영을 모색하는 것임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대륙지역과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접지역과의 물리적 연계, 산업 및 기술 협력, 문화교류 협력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음



(그림 2-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연계 키워드



장

동북아 주변국 관련 및 유사 정책 동향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분석 자료 범위
 - 제 2 절 동북아 국가별 글로벌 경제 및 공간정책 분석
 -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동북아 주변국 관련 및 유사 정책 동향

제1절 분석 자료 범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하여 주변국 관련 및 유사 전략 혹은 정책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분석 자료의 범위는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2차 자료를 주로 이용함
 - 이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유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유사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완
- 또한 관련 자료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몽골로 국한함. 왜냐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핵심내용은 신북방정책과 더 맞닿아 있기 때문임¹³⁾
 - 현 정부는 수도권 및 인천을 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평택, 새만금 등 지역을 대 중국 수출중심지역으로 구상이 포함¹⁴⁾
 - 다만 이러한 생각은 실제적으로 실현 될 것인지는 환황해 경제벨트 지역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상황
 - 환동해 경제벨트는 러시아와의 가스관 건설, 철도 연결 등의 사업 등을 구상의 확대를 통해 몽골의 재생에너지 등의 활용을 통한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동북아 초전력 연결망인 동북아 슈퍼 그리드 계획 등을 고려 필요
- 전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환황해 경제벨트에 속한 지역이며, 특히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중국과의 한중경협단지 추진, 국제 경제협력 단지 조성 등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력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중국·러시아·몽골의 경제개발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13) 임을출, 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통일한국」, 405(0):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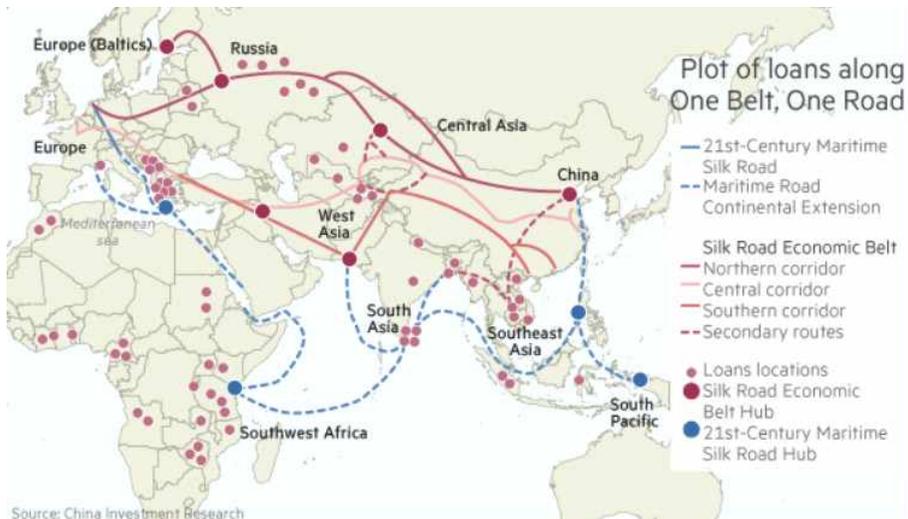
14)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 TF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하여 얻은 내용임

제 2 절 동북아 국가별 글로벌 경제 및 공간정책 검토

1. 중국

가. 배경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은 육상경제벨트인 신실�크로드(一帶)와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개척하는 계획임¹⁵⁾
 - 육상경제벨트인 신실�크로드는 중국의 중·서부 내륙지방의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계획
 -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의 남부지방을 개발하여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는 계획



자료: China Investment Research, Chinese overseas lending dominated by one belt one road strategy

<http://www.chinainvestmentresearch.org/press/chinese-overseas-lending-dominated-by-one-belt-one-road-strategy/> (검색일: 2018.2.02.)

(그림 3-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안)

15) 김예경,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327호.

나. 주요 내용

○ 일대일로 5대 주요노선은 육로 3개와 해로 2개와 6대 경제회랑으로 구성¹⁶⁾

- 육로는 ① 북방노선: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틱해), ② 중앙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 및 지중해, ③ 남방노선: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으로 구분
- 해로는 ①중국연안-남중국해-인도양-유럽, ② 중국연안-남중국해-남태평양
- 6대 경제회랑은 ① 신유라시아대륙교량, ②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③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④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경제회랑, 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⑥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으로 구성



자료: 김예경,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327호:p10 재인용

(그림 3-2) 일대일로 연선 6대 경제회랑

○ 이중에서 신아시아 대륙교량 건설 사업은 장쑤성 쉰윈강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총길이 10,900km 국제 철도간선 구축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유럽의 30여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되는 계획임

16) 김예경,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327호

- 유라시아 대륙교량에는 제일 위쪽에 제 1 아시아대륙교량과 제일 하단부에 제3 아시아대륙교량이 계획되어 있음. 신아시아대륙교량은 가운데 렌윈강에서 시작하여 유럽까지 가는 잇는 노선



자료: 王义桅, 2016. 「世界是通的: 一對一路 的逻辑」, 北京.

(그림 3-3) 유라시아 대륙교량 노선도

- 일대일로는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총 64 개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회랑이 구축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와 경제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63%(약 44억명), 29%(약 21조)를 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 예상됨¹⁷⁾
- 현재 일대일로 사업의 재원규모는 약 1,900억달러(약 207조 7,650억원)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브릭스, 신개발은행, 중국의 단독 출자 등으로 구성¹⁸⁾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tructure Investment Bank)가 약 1,000억 달러,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의 신개발은행이 500억 달러, 중국 단독출자 400억 달러

17) KIEP 북경사무소,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8) 김예경,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327호

○ 일대일로 주요 추진과정 및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 일대일로 추진현황

시기	주요내용
2013. 9	-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일대일로' 전략 제시
2013. 11. 12	- (3중 전화)에서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시
2014. 11. 6	-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44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설립 발표
2014. 12. 9	- 실크로드 기금 설립
2015. 2. 8	- '일대일로' 건설 공작영도소조 구성
2015. 3. 28	-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 발표
2015. 7. 21	- 브릭스 국가 신개발은행 설립
2015. 10. 29	- (5중 전화)에서 '일대일로' 건설 가속화 및 협력확대, 전방위적 개방 추진 강조
2015. 12. 25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2016. 3	- 「13.5 계획」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
2016. 6 .25	- '제1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2016년 연차총회' 베이징 개최
2016. 10. 1	-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 정식 편입
2016. 11. 17	- UN 총회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최초로 결의안 채택
2017. 5. 14	- [예정]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2017. 6. 16	- [예정]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7년 연차총회' 개최

자료: KIEP 북경사무소, 2017. "중국의 '일대일로'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인용

○ 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분야(5通)은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유통', '민심상통'으로 구성.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 일대일로 의 5대 중점협력분야(5통)

구분	주요내용	관련협력분야
정책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강화 - 다차원의 정부간 거시정책 교류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력계획 공동 제정
인프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 통합운송 협력 메카니즘 구축 및 국제운송 편리화 실현 - 항구 인프라 건설 추진, 육해상 연결 운송 원활화, 해상 물류 정보화 협력 강화, 항공인프라 시설수준 업그레이드 ■ 에너지인프라 - 송유관, 가스관 등 운송로의 안전 유지 - 지역 전력망 개선을 위한 협력 적극 추진 ■ 통신인프라 - 정보 실�크로드 건설 및 정보 교류·협력 확대 - 국가간 광케이블 및 대륙간 해저 광케이블 건설 프로젝트 계획, 위성정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건설 - 국제핵심 통로 건설 - 기술 표준체계 연계 - 물류정보화 - 국제통관, 환적 - 녹색, 저탄소 인프라 건설 및 관리 - 우주, 위성정보 네트워크 구축
무역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무역 편리화와 자유무역구 건설 - 투자, 무역 장애 해소 및 양자투자보호협정 강화 -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투자자 권익 보호 - 연선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구 공동 건설에 대해 적극 논의 - 연선국가간 정보교환, 감독/관리 상화 인정, 법 집행의 상호 협력 등 해관협력과 더불어 검역검사, 인증인가, 표준계량, 통계정보 등과 관련하여 양자, 다자 협력 강화 - WTO 무역편리화협정의 발효 및 실행 추진 - 국경지역 통관시설 여건 개선 및 통관 단일창구 건설을 통한 비용 절감 - 검역검사인증서의 인터넷 대조 검사를 시행하고, 종합인증 우수업체(AEO)간 상호 인증 전개 ■ 전통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균형 발전 - 무역영역 확장과 무역구조 최적화를 통한 무역균형 촉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 서비스무역을 촉진하는 동시에 전통무역의 공고화 추진 ■ 투자분야 확대 -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농기계 및 농산물 생산가공업, 바다양식·원양어업·수산물가공·해수담수화·해양바이오의약·해양공정기술·환경보호산업·해양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적극 추진 - 석탄·천연오일가스·금속광산물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탐색/개발협력 확대, 수력발전·원자력발전·풍력발전·태양에너지 등 청정/재 생에너지 협력 추진 ■ 신흥산업 협력 - 연선국가간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신에너지, 신재료 등 신흥산업분야의 협력 심화 - 창업투자 협력 메카니즘 구축 ■ 산업체인의 분업 배치 최적화 - 업·다운스트림(上下游) 산업체인과 연관산업의 협력 발전 추구 - 지역산업의 능력과 종합경쟁력 제고 -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초국경 경제합작구 등 각종 산업단지 건설 협력과 산업클러스터 발전 촉진 -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녹색 실�크로드' 공동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구 건설 - 감독/관리 상화 인정 - 검역검사 - 인증인가 - 표준계량 - 통관 단일창구 건설 - 국경간 전자상거래 - 서비스무역 발전 - 서비스업 개방 - 신흥 산업분야 창업 협력 - 산업클러스터 구축

자료: 이승신 외 6인,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41~44
재인용

〈표 3-2〉 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분야(5통)(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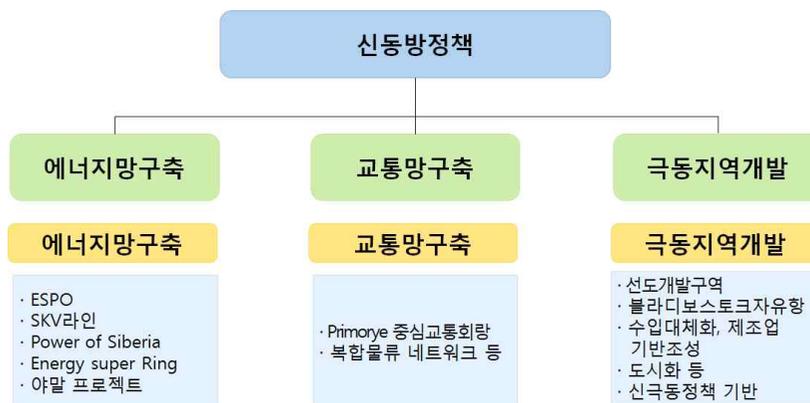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관련협력분야
자금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협력 - 아시아 화폐 안정 시스템, 투융자 및 신용 체계 확립 - 연선국가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와 결산의 범위 및 규모 확대 -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방과 발전 추진 - AIIB, 브릭스개발은행 설립 공동 추진, 관련국과 상하이 협력기구의 융자기구 설립에 대한 협의 진행, 실크로드 기금의 편성과 운영 가속화 - 중국·아세안 은행 연합체 및 상하이협력기구 은행 연합체의 실무 협력 심화, 은행단 대출, 은행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다자 금융협력 추진 - 주변국 정부나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기업 및 금융 기구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 유치 - 조건에 맞는 중국 내 금융기구와 기업은 해외에서 위안화 채권 및 외화 채권 발행 가능 ■ 금융관리감독 협력 - 양자간 관리감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 리스크 대응과 위기관리제도 완비 - 신용조회 관리 부문 및 기구와 평가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 실크로드 기금과 각국 주권 기금의 기능 발휘, 상업 주식 투자기금과 사회자금을 통해 일대일로 중점프로젝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통화 스와프 - 채권시장 개방 - AIIB, 브릭스개발 은행 설립 - 실크로드 기금 운용 - 다자금융협력 -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 - 금융리스크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민심상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 협력 - 유학생 규모 확대(중국은 매년 주변국가의 학생 1만 명에게 정부 장학금 지원), 학교 설립 및 인재 교류 협력 심화 - 주변국가간 문화의 해 상호 지정, 예술제·영화제·드라마 주간·도서전 등 공동 개최 - 세계문화유산 공동 신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작업 협력 ■ 관광 협력 - 여행규모 확대, 여행주간 및 홍보행사 상호 개최 - 주변 각국의 관광비자 편리화 ■ 의료·위생 협력 - 주변국가들과 전염병 관련 정보 및 예방·치료 기술 교류, 전문인재 육성 등 협력 강화 - 관련 국가에 의료원조, 응급의료구조 지원 - 여성·아동 건강, 장애인 재활,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전염병 관련 실무협력 추진 ■ 과학기술 협력 - 과학기술자간 교류 촉진을 통한 기술혁신능력 제고 - 공동 실험실(연구센터), 국제기술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 건설 ■ 기타 - 주변국가간 입법기구, 주요 당파, 정치조직의 우호관계 강화 - 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민간조직 교류 협력 강화 - 문화매체의 글로벌 교류 협력 강화,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 적극 활용, 새로운 매체를 통해 조화로운 문화생태와 여론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문화/인재/체육/과학 등 분야의 교류활동 - 문화행사 공동 개최 - 청년 취업 및 창업 훈련 - 관광비자 간소화 - 직업기술능력 개발 - 사회보장 관리 서비스 - 공공행정 관리 - 공익 자선활동(교육, 의료, 생물다양성·생태보호 등)

자료: 이승신 외 6인,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p41~44
재인용

2. 러시아

가. 배경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에너지수출 주도 경제구조 개선,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편입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에너지·전력망 구축’, ‘교통망 구축’, ‘극동지역개발’의 3차원적 개발전략 수립이라고 언급함¹⁹⁾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오랜 이종적 고립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²⁰⁾
 - 에너지망 구축: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ESPO, 2012년 완공), 사할린극동 가스파이프라인(SKV라인, 2011년 완공), 시베리아의 힘(이루크추크와 블라디보스톡 서브가스관사업), 야말프로젝트(시베리아 최북단 북극해에서 LNG 생산), 에너지 슈퍼링(남한과 북한 전력으로 연결, 일본과는 Energy bridge)
 - 교통망 구축: 프리모리예(Primorye: 러시아 교통망을 중국 내륙, 창지투, 나선 등 연결), 극동중심의 국제교통축 구축
 - 극동지역 개발: 선도개발구역(구역별 특성 산업분야 육성 중심), 블라디보스톡자유항(생산 및 서비스 기반 구축, 인프라 건설 등) 등



자료: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17. “신동방시대, 「극동지역개발」추진현황과 진출과제, 서울:p2.

(그림 3-4) 신동방정책 추진 구조

19) 김상훈, 2017, 「新동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20) 장덕준, 2014.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29(1): 229-266.

○ 3기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자체 발전에 초점. 그리고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맞닿는 지점이라고 제시하였음²¹⁾

- 1기 및 2기에는 지역개발 정책의 기초가 지역균등발전 및 지역거점개발을 통한 파급효과였다면, 푸틴 3기 정부는 극동지역 자체발전에 초점을 둬. 이를 위해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다고 제시

나. 극동지역개발 주요 내용

1) 추진 기초

○ 극동지역개발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의 토대라고 제시²²⁾

-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극동 경제의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한 총 10조 7천억 루블 규모의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 수립 제시



자료: 성원웅·이성규·오영일·P.Minakir, 2013.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2.

(그림 3-5)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극동·시베리아 지역

21) 서종원·한은영, 2018. 「2018 러시아 교통인프라 개발동향과 한국과의 협력방향」, 동북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03호.

22) 김상훈,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 러시아는 자원과 물류 잠재력이 높은 극동지역(극동·바이칼 지역)을 성장 공간의 모멘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푸틴 3.0 초기에 극동개발부 창설과 함께 국내·외 투자를 위해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 수립²³⁾
- 이 프로그램에는 12개의 하부프로그램과 2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²⁴⁾
 - ①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 효율성 향상, ② 광물원료 콤플렉스 개발, ③ 목재 산업 콤플렉스 개발, ④ 수산업 콤플렉스 개발, ⑤ 농공 콤플렉스 개발, ⑥ 교통 인프라 개발, ⑦ 에너지 인프라 개발, ⑧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조건 조성, ⑨ 지역의 환경보존 및 환경보호의 확보, ⑩ 극동개발 국가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학술 및 인력 확보, ⑪ 지역의 관광 발전, ⑫ 극동 개발 국가프로그램 실현 보장
 - 특별 프로그램은 ① 2018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② 2007~2015년 기간의 쿠릴 열도(사할린 주)의 사회경제 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성

2) 주요 사업 및 내용

- 극동·바이칼 개발의 주요 사업은 크게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 개발,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개발), 산업육성 및 도시화로 구분할 수 있음²⁵⁾

■ 경제특구

- 선도개발구역 개발은 극동지역 경제, 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세제혜택,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이며, 총 18개 지역이 지정²⁶⁾
 - 선도개발구역은 구역별 특성화 분야 육성을 목표로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존재

23) 한중만, 2015, “러시아 신동방정책 경제적 배경은?” 「통일한국」, 통권375호; 65-69

24) 성원용·이성규·오영일·P.Minakir, 2013.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김상훈,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26) 김상훈,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표 3-3〉 선도개발구역 현황

연방주체명	선도구 명칭	소재지	특성화 분야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나데즈딘스카야 구	운송, 물류, 경공업, 식료품
	미하일로프스카야	미하일로프스키 구, 스파스키 구 체르니고프스키 구	농업 (돼지사육 및 가공, 사료공장)
	볼쇼이카멘	볼쇼이 카멘시	조선소
	네제프히미체스키	파르티잔스키 구	석유화학
하바로프스크 변강	하바로프스크	하바로프스크 구, 라키트넨스키 마을	운송, 물류, 철강
	콤포몰스크	콤포몰스크-나-아무레시	항공기 및 부품, 목재가공
	니콜라예프스크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	생선가공 및 물류 특화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블라고베첸스키 구, 이바노프 구	공업(시멘트 클링커, 석유정제 등), 운송-물류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 시	농공업 (콩가공, 동물사료, 베이커리 등)
	스바보드니	스바보드니	가스 가공 및 가스화학
캄차트카 변강	캄차트카	엘리조프스키구, 페트로파블로프스키-캄 차트스키 시	관광-레저, 공업, 컨테이너 항만(북극항로용)
	시코탄	시코탄 섬	어류 및 기타 수자원 가공
사하 (아쿠티야) 공화국	칸가라시	야쿠츠크시	산업단지 (세라믹블록, 니스 및 페인트, 플라스틱 관, 건자재 등)
	남야쿠티야	네룬그린스키 구	광업, 공업
사할린주	유즈나야	나니프스키시	농업
	고르니 보즈두흐	유즈노-사할린스키시	관광-레저
유대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 야	비로비잔시, 레니스키구, 옥타브리스키 구	공업, 식품가공업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추진현황과 진출과제, 서울:p.6을 재인용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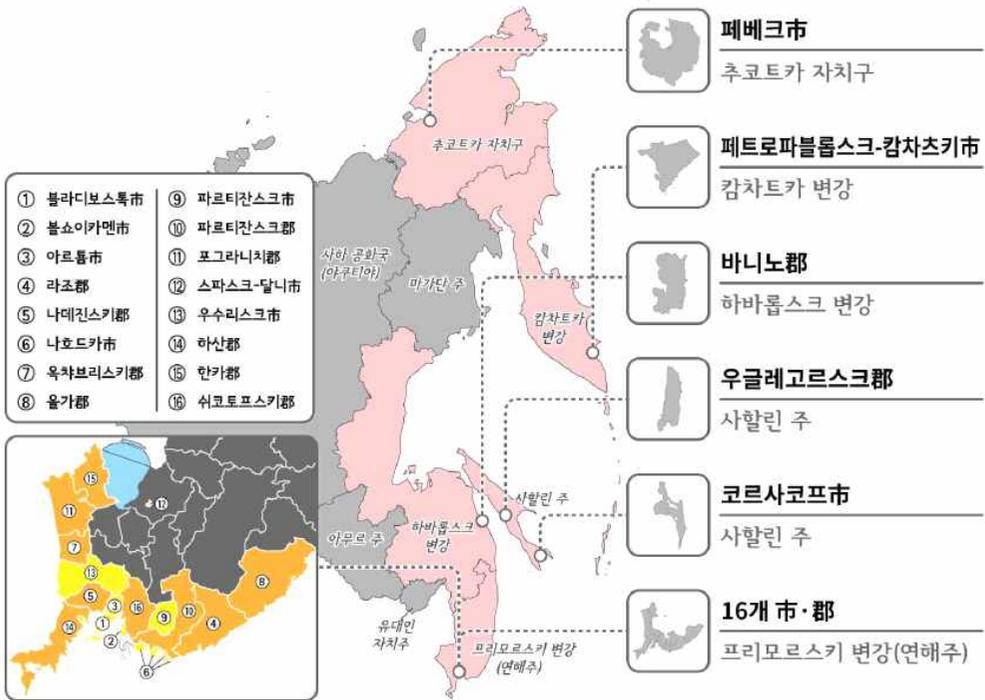
- 블라디보스토크항은 교통,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개발구를 연결시키며 러시아와 아·태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과 물류 특화를 지향(5개지역)²⁷⁾

〈표 3-4〉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비교

구분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정의	기업 및 기타활동의 실행을 위한 특별한 법적 체계가 설정된 영토의 일부		-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치가 설정된 연해주의 영토 일부																					
목적	투자유치를 위한 양호한 여건 조성 가속화된 사회경제발전 보장 국민 생활환경 조성		-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연해주의 지리 및 경제적 장점 이용 -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발전 -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기업 설립 및 발전																					
유효기간	기본 70년, 정부령으로 연장 가능																							
상위기관	극동개발부																							
관리주체	감독위원회 및 관리회사																							
재원	- 연방정부, 각 연방주체 및 해당 지자체의 예산과 예산 외 재원		- 연방정부 및 연해주 지자체 예산 - PPP 매커니즘을 활용한 예산 외 재원																					
인프라 구축 보장	정부예산으로 보장		없음																					
40일 이내 건설허가 발급	해당																							
면세	해당																							
비정기 검사	극동개발부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																							
주요제도	- 외국인 숙련 인력 유치 절차 단순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특별한 감독(검열) 제도 - 관세자유지역의 관세절차 적용 등		- 외국인 8일간 무비자 체류 허용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특별한 감독(검열) 제도 - 통관업무의 간소화 및 관세자유지역의 관세절차 적용 - 보건 분야: 해외업체의 의료 활동 허용																					
조세	법인세	연방세: 첫 5년간 0% 지방세: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0%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일반지역</th> <th>특별경제지역 (SEZ)</th> </tr> </thead> <tbody> <tr> <td>법인세</td> <td>연방예산 : 2%, 지방예산: 18%</td> <td>연방예산 : 5년간 0%, 지방예산: ~13.5%</td> </tr> <tr> <td>재산세</td> <td>~2.2%</td> <td>10년간 0%</td> </tr> <tr> <td>토지세</td> <td>0.3~1.5%</td> <td>5년간 0%</td> </tr> <tr> <td>사회보장</td> <td>30%</td> <td>26%</td> </tr> <tr> <td>부가세</td> <td>18%</td> <td>0% (SEZ항구 제외)</td> </tr> <tr> <td>광물채굴</td> <td>3.6~16.5% 까지 다양</td> <td></td> </tr> </tbody> </table>		일반지역	특별경제지역 (SEZ)	법인세	연방예산 : 2%, 지방예산: 18%	연방예산 : 5년간 0%, 지방예산: ~13.5%	재산세	~2.2%	10년간 0%	토지세	0.3~1.5%	5년간 0%	사회보장	30%	26%	부가세	18%	0% (SEZ항구 제외)	광물채굴	3.6~16.5% 까지 다양	
		일반지역		특별경제지역 (SEZ)																				
	법인세	연방예산 : 2%, 지방예산: 18%		연방예산 : 5년간 0%, 지방예산: ~13.5%																				
	재산세	~2.2%		10년간 0%																				
	토지세	0.3~1.5%		5년간 0%																				
	사회보장	30%		26%																				
	부가세	18%		0% (SEZ항구 제외)																				
광물채굴	3.6~16.5% 까지 다양																							
재산세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																							
토지세	첫 5년간 0%																							
사회보장세	10년간 7.6%																							
부가세	신속히 환급 가능																							
광물채굴세	1~2년간 : 0%,..... 8~10년간 : 0.8%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추진현황과 진출과제, 서울:p.6을 재인용

27) 김상훈,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자료: 서종원·한은영, 2018. 「2018 러시아 교통인프라 개발동향과 한국과의 협력방향」, 동북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03호를 재인용

(그림 3-7)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연해주 인근 지역 확대)

■ 산업육성

- 자원수출 의존형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낙후한 극동지역의 경제·산업 개발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대체산업을 육성²⁸⁾
 -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 경공업, 항공산업, 임업, 화학산업, 무선전자산업, 운송기계 제작, 자동차산업, 농업 및 임업 기계제작, 식품기계제작 및 가공산업, 도로건설 및 비행장 장비, 철강제련, 비철금속제련, 제약산업, 의료산업, 중공업, 에너지기계 제작, 전기 및 케이블 산업, 석유가스 기계제작, 공작기계제작, 조선, 일반 무기 산업
 - 수자원 분야: 극동지역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연해주, 사할린, 쿠릴, 캄차카 등)

28) 김상훈,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 조선업 분야: 대다수 선박이 노후화가 심각, 북극항로 개척 및 북극항로와 내륙항로를 연결하는 선박 등에 대한 수요 대응
- 경공업 분야: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경공업 관련 공단 조성 및 투자 유치에 집중(의류, 건축자재, 건설장비, 보일러, PVC랩, 위생용품, 고철가공, 조선용자재 등)
- 농업 분야: 극동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농업투자가 활발히 진행중

■ 도시개발

- 루스키 섬 개발 등을 포함하여 극동지역 인구 유입과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²⁹⁾
 - 도시개발 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가 연해주 여러 지역을 홍콩·싱가포르 등과 유사한 세계적 자유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³⁰⁾

29) 김상훈, 2017,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중소기업포커스 17(14).

30) 윤성학, 2015,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러협력 방안」, 수은북한경제 2015년 기획논단 가을호.

3. 몽골(초원의 길 이니셔티브)³¹⁾

가. 배경

-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는 2013년 중국·몽골·러시아 3국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통합한 계획으로 중국·몽골·러시아 3국을 연계하는 경제회랑 구축의 몽골 쪽 개발계획
 - 이 계획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가스관, 송유관, 송전망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명시
 - 이 프로그램은 교역증대, 생산물의 경쟁력 확보, 초국경 운송 원활화, 인프라 발전 등을 지향하는 계획
- 몽골은 국가개발정책을 통하여 향후 유라시아 역내 통과운송 및 물류 허브(transit hub), 역내 주요 에너지 공급자(energy supplier), 역내 무역 촉진자(trade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 제시
 - 국가개발 정책은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을 필두로, 몽골 대외경제교류 프로그램, 국가철도교통정책, 국가산업정책, 국가에너지정책, 몽골정부 2016-2020년 행동계획 등

〈표 3-5〉 몽골의 주요 국가정책별 사업

구분	사업
국가 교통	중앙, 동·서·남·북철도 회랑, 두만강교통회랑, 프리모리에-1 철도, 아시아 자동차도로 (모-3,4), 동부 자동차 회랑, 몽골영토지나는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등
국가 에너지	Tavantolgoi·Baganuur·Telmen 화력발전, EG 수력발전, 서부, 동부 화력발전 Shivee Ovoo 화력발전소, Selenge 강 유역 재생에너지 파크 등
국가 산업	수입대체 산업정책(석유정제업, 철강제련산업, 시멘트, 단열재, 건축자재제조업 등) 수출중심적 산업구조구축(철, 구리 등 철광제련, 금가공업, 화학공업, 농업기기제조업 등) 지식기반산업 개발, 서비스업 또는 기술수출지원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을 인용 및 정리하였음

나. 주요 내용

- 교통 인프라에 발전을 위해서 “교통 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 제고”,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및 세관 업무 검역 관리” 주요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제시
 - 교통 인프라는 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운으로 구분
 - 몽골의 철도는 중요한 수단이며 수동분담률은 63%임. 또한 전철화 및 복선화가 필요

〈표 3-6〉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 인프라 발전 분야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사업
교통인프라	1. 중앙 철도 회랑(울란우데 ~ 나우쉬키 ~ 수흐바토르 ~ 울란바토르 ~ 자민우드 ~ 얼렌 ~ 장자커우 ~ 베이징 ~ 텐진) 종합적 현대화 및 발전, 복선화 및 전철화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5. 두만강 교통회랑(‘프리모리에-2’)(초이발상~숨베르~아르산~울란~호토~장춘~엔지~훈춘~자루비노)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6. ‘프리모리에-1’ 철도 교통회랑 (초이발상~숨베르~아르산~만저우리~치치하얼 ~하얼빈~무단장~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훗카)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7. 몽골 영토를 지나는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간선 건설 가능성 연구 8. 3자 물류기업 설립 문제 협상 수행 9. 아시아 자동차도로망 AH-3노선(울란우데~카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산드~자민우드/얼렌~베이징 외곽~텐진)통과운송 집중 이용, 해당 노선 고속자동차 도로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12. 중국, 몽골, 러시아 간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운송(UNESCAP) 협정 서명 및 실현 촉진 13. (울란우데 ~텐진)통과 교통회랑(울란우데~카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산드~자민우드/얼렌~울란차브~베이징~텐진)통신 인프라의 적극적 조성, 안전보장 및 기술과정 관리의 장 마련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3을 재인용



(그림 3-8) 프리모리에-1 철도회랑



(그림 3-9) 프리모리에-2 철도회랑



(그림 3-10) 북부 철도 회랑



(그림 3-11)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AM4)



(그림 3-12) 동부 자동차 도로망



(그림 3-13) 동서,북부 및 중앙 철도회랑 종합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p73을 재인용

〈표 3-7〉 중·몽·러 경제회랑의 국경 물로 및 세관업무 분야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사업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16. 러시아 - 자바이칼스크 철도 통과지점, 포그라니츠니, 크라스키노, 몬디 자동차 통과지점 보수, 중국 - 만저우리, 수이펀허, 훈춘, 얼렌 통과지점 현대화, 몽골 - 철도, 자동차 통과지점 현대화 및 건설
무역, 세관, 검사, 검역 부문 협력	18. 2015년 7월 9일자 중·몽·러 국경을 지나는 통과지점 발전 부문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3국간 무역 발전 촉진을 위한 호의적 조건 조성 부문 협력에 대한 중·몽·러 세관 간 MOU 실행 19. 중·몽·러 세관 간 일부 상품에 대한 세관 통제 결과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 서명 및 실행 촉진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76을 재인용

○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협력”, “지방간 협력”, “전력 인프라 협력”, “식품안전, 검역, 농축산업, 환경보호 협력”, “관광협력”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

- 산업협력

: 전자정보 네트워크 확대, 인터넷 트래픽 및 전자상거래 증대, 전력망 발전소 건설의 기술 경제적 타당성 연구, 몽골을 통과하는 중·러 송유관 및 가스관 경제적 타당성 연구,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협력 지속 등이 포함

- 지방간 협력

: 3국간 생산협력 클러스터 조성, 중·몽·러 지방간 경제협력 시범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만저우리, 얼렌, 등이 변경 경제협력구로 운영 중)

- 전력 인프라 협력

: 몽골의 전력상황은 노후화된 전력시설에 의해 전력의 약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 따라서 몽골은 전력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중국은 몽골에서 전력을 수입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몽골 전력 시장 투자를 원한다고 언급. 이와 더불어 중국의 낮은 송전망과 높은 손실률로 인해 전력이 원활히 공급안됨. 이에 따라 중국 및 우리나라와의 신재생에너지, 석탄발전소, 풍력 그리고 수력 발전소 등 다양한 전력공급 계획이 진행 중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9을 인용
(그림 3-14) 만저우리, 얼센, 수이펀허 변경경제협력구

- 식품안전, 검역, 농축산업, 환경보호 협력
: 몽골의 축산물을 중국 및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강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인
다우리아/다구우르 보호구역을 포함한 환경보호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9을 인용
(그림 3-15) 중·몽·러 다우리아/다구우르 보호구역

- 관광협력

: 러시아의 바이칼 호, 몽골의 흡스굴 호, 중국의 후룬베이얼 호를 관광고리 조성,
위대한 차의길 브랜드 개발 등이 포함



자료: 제성훈 외 2인, 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5을 인용
(그림 3-16) 중·몽·러 초국경 관광 노선 개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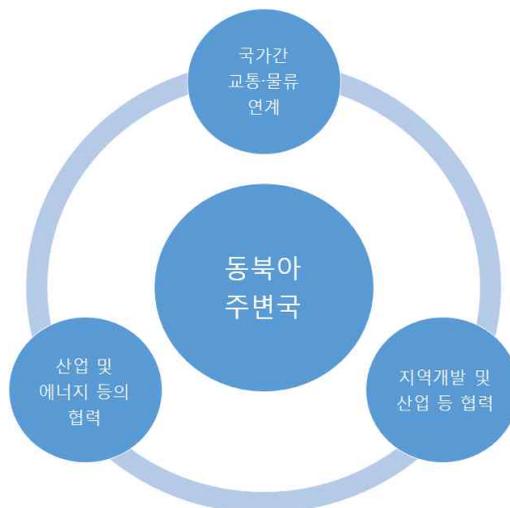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교통·물류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를 잇는 경제회랑을 계획하고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는 6대 경제회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신유라시아 대륙교량(물류의 핵심통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에너지 개발), 중국-파키스탄(석유 운송),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아세안 국가와의 무역교류), 중국-중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등으로 구분
-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개발, 교통망 구축, 극동지역개발로 구분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극동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은 극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낙후, 에너지 확보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판단. 이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과 산업육성 및 도시개발을 시도
- 몽골은 ‘초원의 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몽골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려고 함.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지리적 이점의 활용과 에너지 확보 및 산업개발에 대한 변화를 계획
 -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들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에 대한 개발과 에너지분야 및 산업 분야의 주변국(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

2. 시사점

- 중국, 러시아 및 몽골은 공통적으로 동북아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동북아 시장뿐만 아니라 서쪽의 유럽시장까지도 확대 추진
 - 이와 더불어 중국-몽골-러시아 3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교통·물류 및 에너지 분야라고 요약 가능
- 그 외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정책은 국가 내부적으로 갖는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는 방향(산업개발,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등)으로 계획되었음
- 주변국 관련 정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참여 및 협력임. 3국의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교통·물류의 연결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둘째, 에너지 협력임. 교통·물류 인프라와 더불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임. 이외 지역별 지역개발 및 산업에 대한 협력을 피하고 있음



(그림 3-17) 동북아 주변국 중심 키워드

4

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새만금사업의 주요 내용과 국가적 가치
 - 제 2 절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분야 설정
 - 제 3 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제 4 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제 1 절 새만금사업의 주요 내용과 국가적 가치³²⁾

1. 새만금 기본계획

가. 새만금의 비전과 목표

가) 비전과 미래상

-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새만금을 협력과 교류에 의한 공동번영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의미부여
 - 새만금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 무역 중심지'로 육성
 -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성장동력으로 국가간 공동번영의 미래 실현이 핵심

나) 새만금 사업의 5대 목표

-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조성', '글로벌 정주 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 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를 5대 목표로 설정
 - 특히 경제협력 특구조성은 무역·투자·기업활동의 無장벽, 생활의 無장애, 사회·문화적 無차별의 「3無」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며, 한중경협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 및 확산이 주요 내용
 - 또한 경제협력의 시범도시 육성을 위하여 새만금은 국내 최고수준의 탈규제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고, 투자성격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 기업지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

32) 새만금개발청, 2014. 「새만금 기본계획」, 대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
-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

**상호번영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 산업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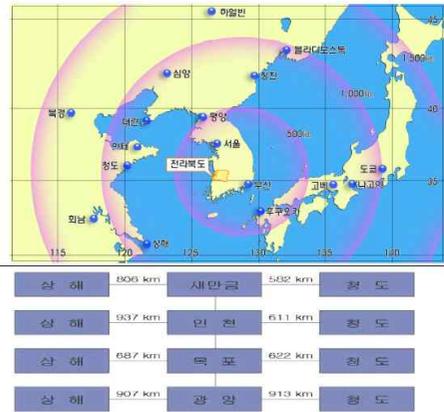
자료: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2014)

(그림 4-1) 새만금개발 MP 변경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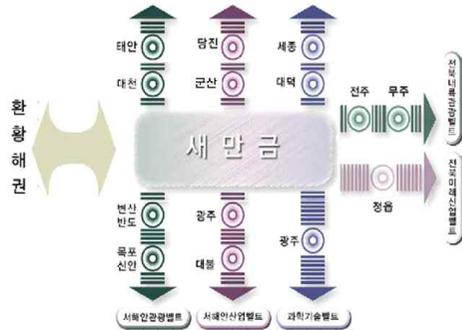
나. 새만금의 장점과 잠재력

1) 환황해권 등 국내·외 핵심 거점과의 유리한 접근성

-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유리한 지리적 이점 보유
 - 중국 서해연안의 경제거점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산-무안-대불을 잇는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있어 일대의 시작점인 뚝양강과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지근거리에 위치
- 상해, 청도 등 중국 내의 대표적 산업집적지와 한중산업협력단지와의 항만 접근성이 국내의 다른 지역(인천, 광양, 부산)에 비해 양호
- 대한민국 최대 시장인 수도권 및 산업집적지인 동남권과의 육상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전북의 연구개발특구와 대전시 연구개발거점과의 근거리에 위치



(그림 4-2) 동북아에서 새만금 위치



(그림 4-3) 국토발전축상에 새만금 입지여건

자료: 새만금개발청, 2014. 「새만금 기본계획」, p22의 내용을 인용

2)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 실현의 최적의 공간

- 새만금은 2013년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는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새만금이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의미하는 것임

3)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경제특구

- 새만금은 대한민국 내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제특구로서 신속한 사업추진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임
 -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새만금특별법의 일부개정을 의결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근거법과 함께 2018년도 하반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
 -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새만금개발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와 함께 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투자 및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 가능

2. 새만금사업의 주요 내용

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경제협력 특구³³⁾

○ 새만금지역 내 경협특구 3대 거점 설정과 거점별 차별화 전략 수립,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적 추진, 새만금경협특구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등을 계획

- 국제협력, 관광·레저, 산업·연구의 3대 거점을 설정, 한중경협을 선도로 미, 일, EU 등으로 경제협력 확산 모색, 글로벌 기업투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계획

■ 국제협력거점

- 국가간 협력에 의한 경제협력특구의 중심으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국가주도의 경협단지 조성 후 이와 연계한 생산·수출·지원 기능 강화
- 한국의 FTA 네트워크와 한중경협단지를 선도로 국가간 협력에 의해 계획단계에서 개발, 기업 유치까지 공동조성 추진
- 국제협력시설, 글로벌 기업본사 및 지역본부, 연구개발과 고차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항만물류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도시형 관광산업이 복합된 새만금의 핵심거점으로 개발

■ 산업연구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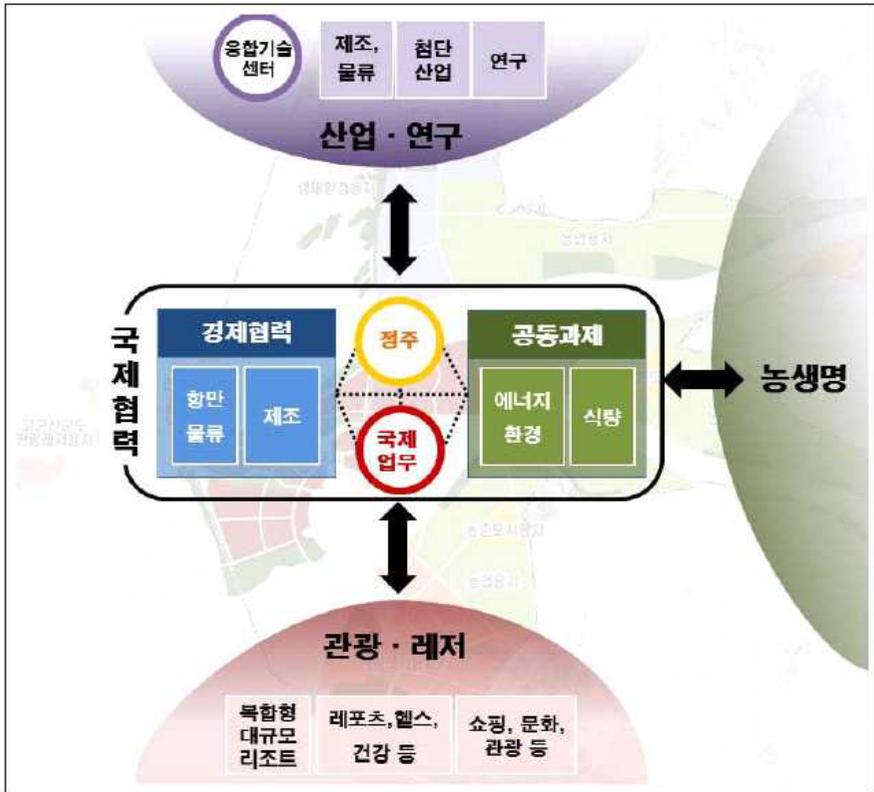
- 산업단지 등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경협국가의 개별적 입주기업 및 항공소음 극복 가능 산업과 연구시험시설 등 우선 유치
- 기존 주력산업 및 에너지 융합기술 등 미래 대비 시험연구기능 유치 추진
- 경협국가간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그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글로벌 융합기술센터 설치 추진

■ 관광레저거점

- 글로벌 관광자본 유치와 함께 새만금의 지역특성 자원이 결합하여, 국제 관광산업을 리딩할 새로운 관광거점 조성

33) 새만금개발청, 2014. 「새만금 기본계획」, 세종시: p. 49-57 내용을 정리

-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 창출형 복합형 관광레저 및 휴양시설을 도입하고, 복합 관광시설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 시설 등이 융합된 권역으로 개발



자료: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2014)

(그림 4-4) 새만금 MP 변경상의 권역별 개발방향

- 새만금의 경험특구는 한중경협단지를 선두로 다양한 국가와의 경험특구 조성도 고려토록 함
 - 일본 경험특구: 자연재해, 전력공급불안정 등의 불안감으로 탈(脫)일본 자본과 인력 유치
 - 미국 경험특구: 미국의 중국시장 전초기지로 새만금 선택토록 추진
 - EU 경험특구: 서구권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업환경 제공, 독일 및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고 다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와 우선 협상

나. 한·중 경험 추진

- 2014년 7월 한중 정상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 차원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언급
 -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새만금 사업지역에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조성될 개방형 경제특구를 의미
 -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개발은 정상회담, 경제장관회의 등 양국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개발방안은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 양국 기업간 협력에 의하여 ‘기업주도 정부지원’의 형태로 진행
-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협력단지 개발 추진³⁴⁾하면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새만금지역을 선정
 - 새만금개발청은 한중경협단지 선도사업으로 조기 조성이 가능한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에 4.5km²(10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
- 중국은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장쑤성 한중(옌칭)산업단지, 산둥성 한중(옌타이) 산업단지, 광둥성 한중(후이저우) 산업단지 등 3곳을 지정³⁵⁾
 - 옌타이: 첨단장비, 에너지, 금융, 문화, 헬스케어 등
 - 옌칭: 자동차, 서비스업, 스마트장비, 광전융합산업, 신에너지산업 등
 - 후이저우: 첨단전자산업, 환경산업 등³⁶⁾
- 새만금은 한중 FTA 산단으로 단독 선정하고, 탄력적 인센티브 제공, 특정 분야 규제 전면 개선,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계획하였음

34) 새만금개발청, 2015.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현황”. 세종시.

35) 한국무역협회, 2017.12.20., “中, 한중산업단지 3개 건설 예정”,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5/index.jsp?sCmd=VIEW_CHINA&nPostIndex=16328

36) 이복자, 2016.7.26., “한중 후이저우 산업협력단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ldx=151170>

- 탄력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투자 프로젝트별로 경제발전 기여도 등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통해 유연성 있게 인센티브를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 구축과 노동, 금융, 관광, 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중점적 개선 추진
- 외투기업, 국내기업 모두 법인세, 소득세감면하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료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50년간 장기임대와 50년 추가연장 가능)
- 이를 위해서 임대용지의 조기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



(그림 4-5) 한중산업단지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목표를 수립
 - 1단계 1.3GW(태양광 1.2GW, 풍력 0.1GW), 2단계 0.9GW(태양광)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2.2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
 - 공모를 통해 2018년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그 전인 2018년 9월부터는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 추진
-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조산업단지, 배후항만, 연구·실증·인력 양성 센터 구축 등을 진행할 것임
 - 이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장창출 및 확대, 기업유치 및 산업활성화,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공급기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라. 글로벌 인프라 확보 및 SOC 기반 확대

-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새만금 내부를 동서와 남북 각 3축의 도로와 함께 새만금~전주~포항 고속도로를 추진중임
 - 현재 동서 1,3축과 남북 1축 완공, 동서2축과 남북 2축은 공사가 진행중이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
 - 주 간선도로는 최대 ‘24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조간선도로는 ‘25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
- 현재 기준으로 새만금 신항만 및 배후단지가 공사중이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임
 - 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사전타당성조사를 대비중
 - 물류기반 확대를 위하여 18선석의 신항만 건설을 추진중이며, 접안시설 규모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림 4-6) 새만금 주요 인프라 시설

제 2 절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협력 분야 설정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주변국의 관련정책 시사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확대·형성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유럽, 동북아로의 시장 확장을 계획하며, 물리적으로는 중국·러시아·몽골 및 유럽까지의 철도·도로중심의 연계를 계획하는 것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 및 주변국과의 공간적 연계와 산업협력 등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
 - 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내용은 H형태의 3축의 경제협력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 3개의 축은 북한의 성장거점 개발에 대한 효과를 1차적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확대, 2차적으로는 남한과 유라시아까지의 확대·연계 추진하는 것
- 주변 북방국가의 주요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변국가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인접한 국가와 도로 및 철도의 연계,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 및 산업개발협력 그리고 에너지 협력 등을 추진
 -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대륙으로는 유럽까지 철도를 연계하고 아세안국가와의 해상운송로를 계획
 - 러시아는 저개발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이 지역과 주변국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망 구축 추진
 - 몽골은 자국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의 교통인프라 발전 및 연계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력 분야의 협력을 계획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주변국 관련정책의 공통된 주요 핵심사항은 바로 주변 국가와의 연계협력, 에너지·전력 협력을 들 수 있음
 - 여기서 북한 및 주변 국가들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시도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목표로 설정 가능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새만금의 지위 제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환황해 경제벨트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북한의 거점발전과 이에 대한 효과를 서해안 축으로의 확대·연계를 위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이 있음
 -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환황해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동부연안 및 중국의 주요 거점지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 유리
 - 새만금은 여의도의 2/3에 달하는 용지와 호소를 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한 장점 보유
 - 또한 새만금은 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부지는 다른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가능
- 새만금은 글로벌 인프라 확보 및 SOC 조기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부연안 축으로의 연계가 직접적으로 가능함
 -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망은 동서남북 및 환동해축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성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의 연계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변지역과의 광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새만금기본계획과 광역기반시설설치 계획을 통해 신항만 및 신공항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 중국 및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교통·물류의 연계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산업경제적 측면과 투자유치 측면에 있어서 새만금에 국가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한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새만금 기본계획(2014)에 따르면 새만금은 상호변영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지향
 -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가능하며, 특히 한중 FTA에 따른 한중산업협력단지는 이러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에 대한 발판으로 활용 가능
- 최근 새만금의 주요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동북아 모든

국가의 공통된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국가간 협력을 위한 핵심분야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동부연안, 몽골, 러시아 및 일본으로까지 주요국간의 전력망을 공유하는 에너지 슈퍼그리드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력분야의 국가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태양광, 풍력, 저장장치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하여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베드로 활용가능하며, 향후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확보 가능

○ 마지막으로 새만금은 대단위 농생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북한뿐만 아니라 몽골 등 주변국가의 식량문제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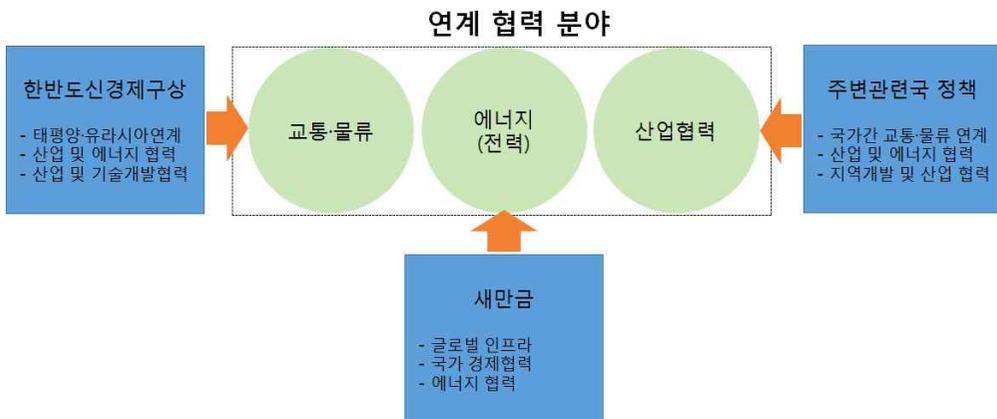
- 새만금은 전체 면적의 약 30%가 농생명용지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첨단농업을 기반으로 수출농업을 추진 중
-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등 새만금의 대규모 경작지를 활용하여 향후 대량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4-7) 새만금의 지리·경제적 위상과 가치

3. 연계협력분야 설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주변 관련국의 정책 그리고 새만금의 지리적,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새만금이 크게 교통·물류의 연계, 에너지 협력,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새만금은 환황해축 중심부에 있고 중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물류의 핵심지역으로의 역할 수행이 가능. 또한 경제특구개발 및 국가경협단지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국의 주요 이슈인 에너지 산업분야 협력에 기여 가능



(그림 4-8) 연계협력 분야 설정

제 3 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1. 교통물류 분야

■ 중국 일대일로와의 초고속 연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만금은 중국의 일대일로, 그 중에서도 일대(一帶)의 시발점인 렌윈강(강소성 연운항시)과 직접 연결을 통해 유럽 및 중국 서부까지의 교통·물류 확대 가능
 -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은 자매결연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 중
 - 중국횡단 철도(TCR)의 시발점인 연운항시와 항로 확대 및 한중 해저터널 추진 등으로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여 가능
 - 이와 더불어 중국 측의 한중산업협력단지 중 엔칭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위치가 렌윈강 인근에 있어 이와의 연계 협력발전 추진 가능



(그림 4-9) 새만금과 중국 일대일로 시점과의 연계

- 한중해저터널은 하이퍼루프 등 초고속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환황해권 내에서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개선 가능함
 - 하이퍼루프 기술이 실제 일부 시범구간에 건설 중임. 아랍에미리트(UAE)는 2020년 UAE 엑스포가 열리는 시점을 목표로 두바이시에서 엑스포장까지 10km 구간을 하이퍼루프로 구상중으로 실제로 3대 하이퍼루프 회사 중 하나인 HTT는 지난 4월 이 구간 공사를 위하여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체결
 - 민간기업인 하이퍼루프원은 2017년 말 시속 387km로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실험한 바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미주리주, 인도 뭄바이~푸네 500km 구간 등에서 하이퍼루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참여



(그림 4-10) HTT사의 하이퍼루프 캡슐 모습

- 이와 같은 초고속 교통망을 통한 중국과의 접근성 향상은 환황해권인 중국의 장강삼각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서해측 경제회랑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가능하며, 중국의 동부와 우리나라 서해의 공동 개발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특히 한중간 하이퍼루프 등 초고속 교통망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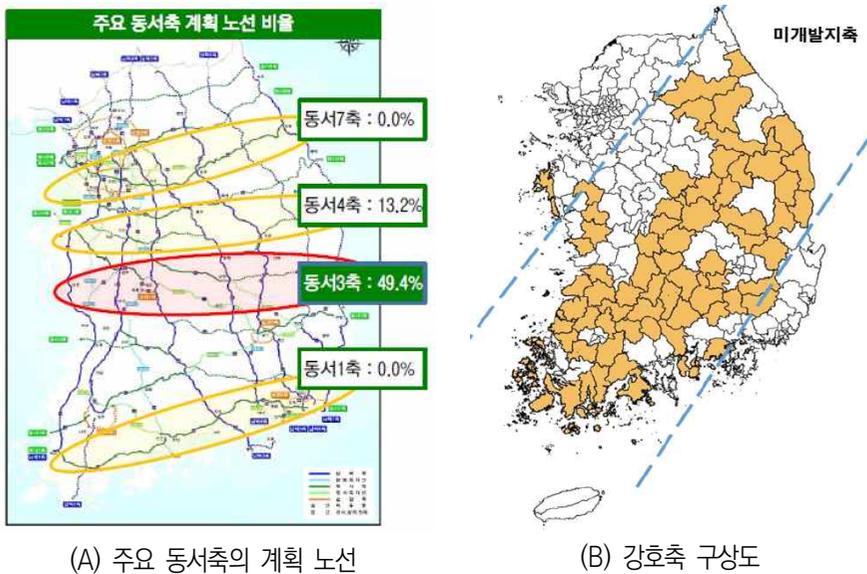
Ⅰ 한반도 동서횡단철도 연결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전북은 남북철도의 일환인 서해안선과 동해안선을 동서축, 강호축 등을 통해 연결 추진 필요
 - 전북은 한반도의 동서축 및 강호축을 활용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의 철도연결을 통해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자원 교류 확대 가능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새만금(서해안벨트)-동해안벨트-북한-러시아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동서간 교류협력의 핵심 거점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는 H형으로 경제벨트 및 평화벨트를 추진 중이나 양측 경제벨트를 연계하는 평화벨트는 실제로 산업 및 인프라의 동서간 연계 보다는 DMZ 환경을 활용한 평화관광벨트에 가까움
 -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와 물류 등 서해안 경제 거점역할을 수행하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가스라인 및 물류를 한반도의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물류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필요



(그림 4-11) 동서횡단 철도 연결

-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에서의 환황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를 연결하기 위한 한반도 동서축으로 새만금을 기점으로 하는 동서횡단철도 및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강호축 철도 연계 교통망 강화 등 추진 가능
 - 한반도의 경우, 경부축 등 국토의 남북축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되어 동서축, 특히 영호남간의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함께 국민 화합에 기여 가능
 - 강원도와 충청권, 호남권을 연결하는 강호축 역시 경부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에서의 환동해권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을 한반도의 환황해권과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호축상의 교통망 강화가 필수적



(그림 4-12) 동서축 및 강호축 구상

Ⅰ 서해안축 철도망 구축

-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안에서도 환황해 경제벨트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한반도를 중국·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목포와 새만금, 인천, 신의주 등 경의선과 서해안선을 연결하는 남북철도가 핵심적인 철도망
 - 서쪽으로는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과의 연계, 북쪽으로는 개성, 신의주 북경, 몽골과의 연계, 남쪽으로는 신남방정책 주변국과의 연계 할 수 있는 주요 축
- 또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경의선과 서해안선을 연결하는 남북철도가 핵심 역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 중인 새만금을 포함하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 필요
-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서해안축 구축을 통해 산업발전 및 관광,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그림 4-13)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

Ⅰ 글로벌 인프라를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핵심 기능 확보

- 수출입 등 주변지역 및 주변국가와의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과 서해축 주요 항만과의 연안항로 구축 등 환황해 연계 강화 필요
-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을 포함한 환황해권은 산업단지를 포함한 각 국가별 주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 가능

- 새만금의 경우,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신항만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류 뿐만 아니라 연안물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향후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단일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차원에서 필수 기반시설 접근 필요
 -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과 함께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신항만의 물동량 확보를 통한 항만 및 배후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전략적 대응 필요
 - 따라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을 포함한 연안항로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농생명산업 등 항만 특화운영 방안 모색 필요
- 경제통일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의 시장을 통해 경제영토를 공유하고 넓혀 국가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수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요구
 - 통일에 따른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필요성과 함께 경제공동체를 통한 시장의 확대는 항공수요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에 대한 장기적 측면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수요예측과 적기 공급 필요



(그림 4-14) 새만금과 국내외 연계 구상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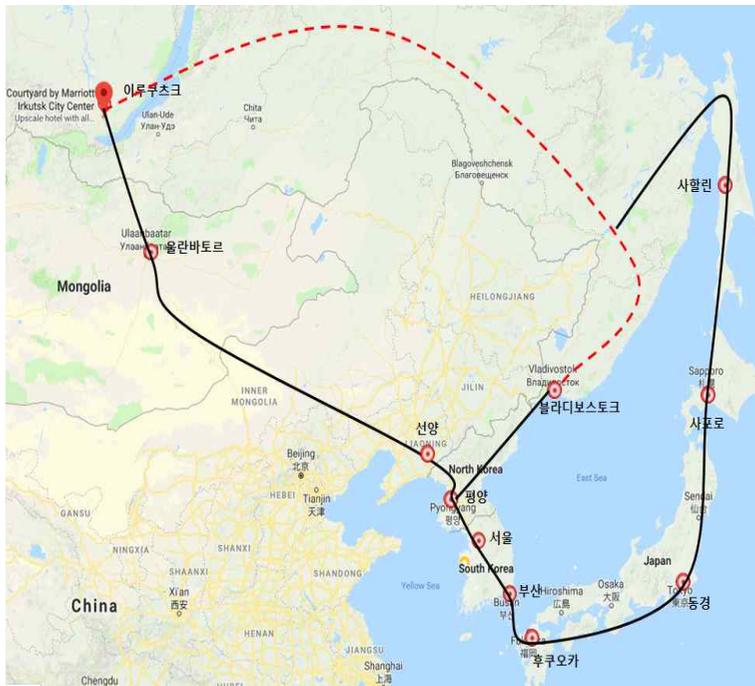
2. 에너지 분야

Ⅰ 동북아 스마트 슈퍼그리드의 메가 허브 구축

- 동북아 슈퍼 그리드는 몽골-중국-한국-일본을 전력망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몽골의 재생에너지(태양광)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 한국과 러시아 정부간에 전력에너지 분야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러시아와 공동연구에 착수
 - 이후 2012년부터는 중국, 일본 등과 국가 간 예비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주요 경제권별로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 해외 사례는 북유럽 슈퍼 그리드(북해 연안 해상 풍력, 독일의 지상풍력 발전, 노르웨이 수력발전을 이용), 남유럽 슈퍼그리드(사하라 사막의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 북아프리카 슈퍼그리드(콩고의 잉가뎀 수력발전을 이용) 등이 대표적
- 우리나라는 국가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음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새만금은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에 있어 발전(생산) 및 기술개발(R&D) 핵심역할 가능
 - 해외의 사례처럼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함께 컨트롤타워 기능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 슈퍼 그리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향후 국가간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력망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장 및 연계 필요



(그림 4-15)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그림 4-16)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자료: 성원용·이성규·오영일·P.Minakir, 2013.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정규재, 2017. 「세계 주요 슈퍼그리드(전력망) 추진 동향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7-16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

주: 실선은 1단계, 점선은 2단계, 사포로 사할린 부분은 정규재의 내용을 재인용



자료 국민일보, 남북경협, 신북방정책 연결하면 탈원전·탈석탄도 탄력, 2018.04.30.일 기사를 이용

(그림 4-17) 새만금 연계 전력망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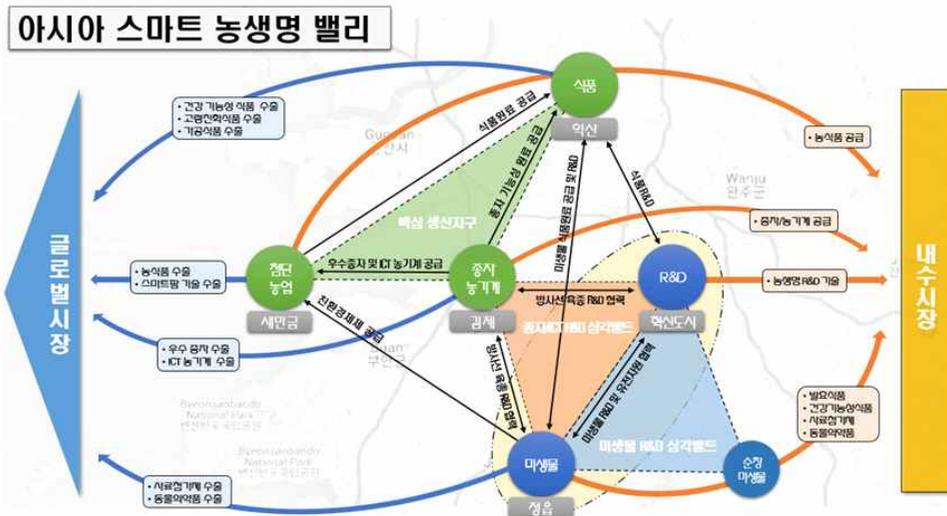
■ 수소인프라 구축 및 수소산업 활성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동해 경제벨트의 핵심사업인 한-러시아 가스관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내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새만금지역내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과 R&D 기반 구축을 통하여 불규칙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보완
 - LNG 냉열을 이용하여 농산품 및 식품에 대한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냉장 및 냉동 저장창고를 구축하여 농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가능

3. 산업교류 분야

Ⅰ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글로벌 기반 구축

-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동북아의 상호변영과 공동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식량문제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 전라북도의 농생명 관련 주요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에 있어 국제적 확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활용 필요
 - 전북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을 위한 식품, 종자, 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개 클러스터 육성과 4차산업 플랫폼 구축 추진
 - 그 중에서 새만금은 첨단농업 클러스터로 농식품 수출과 스마트 팜 기술개발 및 활용 거점 역할로 수행 가능
-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있어 지역간의 교류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농·생명분야이며, 식량문제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새만금사업은 최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새만금의 농·생명용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남북교류 활동에 활용 가능
 - 북한의 식량문제와 높은 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 포함 농생명 산업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북한과 함께 동북아 식량관련 공동 문제 해결과 함께 농생명 분야의 교류활성화로 북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생명산업의 고부가치화 선도
 - 이를 위하여, 농·생명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미래형 신산업 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R&D 분야의 규제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공동 대응을 통한 협력을 모색 필요
 - 구체적으로 현재 전라북도는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지원,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낙농업기반 복합단지 조성,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축산물 가공 유통기지 구축 등의 연계 사업 추진을 구상 중



(그림 4-18)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개념도

■ 새만금 남북경협단지 조성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해빙모드로 진행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인 개성공단의 재개 등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지역인 새만금에 가칭 “새만금 남북 경협단지” 조성 추진
 - 북측의 개성공단과 대비되는 남측의 남북경협단지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북측 인력공급, 남측 부지제공 및 자본참여 등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추진 가능
- 새만금은 국내 유일한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등 3개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확장 가능
 - 새만금에는 한중FTA를 통해 국내 유일한 한중산업협력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보유
 - 향후 한중산업협력단지와 함께 남북경협단지가 새만금에 추진된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 가능 예상

Ⅰ 남북 공동 “사이언스파크” 조성

- 기존 생산 중심의 남북간 산업협력을 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과학단지)를 새만금에 조성 필요
 - 사이언스파크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중심이 되는 산학연 집적지로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지역산업에 이식하는 기능을 수행
 - 남북한은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가 서로 달라 기술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술은 강하지만 기업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협력해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경우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산업기술 면에서 이익창출 가능
 - 성공사례로는 독일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파크'가 있음. 이는 독일 통일 직후인 1991년 베를린의 구동독 지역에 조성되어 실직 위기에 처했던 5천600명의 구동독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25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그림 4-19) 독일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파크' 전경

- 전라북도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어 연구기능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만금에는 산업연구용지는 이와 같은 연구활동을 위한 시설의 집적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신산업 초기단계인 농생명 융복합분야, 융복합소재부품분야 등 특화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연구성과사업화, 벤처생태계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구축 추진
 - 농생명 융·복합산업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동식물의 생육과 인간 생명유지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 탄소기반의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은 미래산업의 쌀로 인정받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 시범사업으로 우수한 공학 기반을 갖춘 북한의 대학·연구소의 분교 및 분원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과 연계하여 남한의 산업계 전문가와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추진
 - 설립된 사이언스파크는 기술창업 지원,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주요 기업의 기술투자 유치 등의 기능을 담당
 - 사이언스파크는 고급인력의 교류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기술협력의 거점 역할 가능

5

장

연구종합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연구종합
제 2 절 향후 과제

제 5 장 연구종합

제 1 절 연구종합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내용을 확인하고 주변국의 국가별 개발 및 경험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환황해축, 환동해축, 접경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축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맞닿아 있는 신북방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지도를 북방으로 확장시키려는 경제정책의 일환임을 확인
-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사사례와 관련된 개발정책을 살펴보았음
 -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몽골은 초원의 길 프로젝트 등 검토
 - 각 나라별 정책을 종합하면 3개국이 교통·물류,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협력하고, 각 국가가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의 주요내용과 함께 새만금의 활용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변국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기여하기 위한 새만금의 역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하여 새만금은 교통·물류, 에너지 분야, 농생명 및 산업 등의 협력가능 분야 제시
 - 구체적으로 새만금은 서쪽으로 중국의 TCR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하였으며, 북쪽으로는 베이징과 몽골지역까지의 연계가 가능
 - 특히 새만금은 중국과 몽골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식품을 운송할 수 있는 물류의 허브로 계획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해축과 강원도 및 동해안 쪽과의 연계

를 할 수 있도록 한반도 동서횡단철도를 제안

- 에너지 분야에 있어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새만금의 연계를 위해서 몽골의 재생에너지 활용하여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전력망을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공급 허브로의 구축을 제안
- 산업교류 분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만금의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조성 계획과 연계 제안
- 이와 더불어 신히만을 중국, 몽골과 러시아의 상품들을 연계할 수 있는 물류의 허브로 구축할 것과 새만금에 남북경협단지를 구축하여 북한의 인적자원과 남한 또는 중국의 자본 등의 투자 유도의 필요성 제안

제 2 절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본 연구는 현재 통일부에서 진행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연구”의 결과 중 일부분과 함께 보도자료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제안을 도출하여 구체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
 - 둘째, 주변국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제한된 자료 활용으로 인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새만금과의 연계 방안 도출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아닌 부분적인 검토와 연계방안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통일부에서 수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 연구”와 함께 후속으로 추진될 세부 연구과제의 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세부분야별 구체화된 전라북도 차원의 전략과 함께 실행방안 모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이와 함께 전라북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전라북도가 남북 교류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 김예경,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327호.
- 새만금개발청, 2015.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현황”. 세종시.
- 새만금개발청, 2014. 「새만금 기본계획」, 세종시
- 이승신·이현태·현상백·나수엽·김영선·조고운·오윤미,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규창·김상기·김석진·김수경·김현집·이우태·전병곤·정성윤·조한범·한동호, 2017. 「평화와
변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이재현, 2017.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아세안을 통한 외교다변화”, 「안보현안분석」,
Vol.138호
- 임을출, 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 내용 및 평가”, 세종정책포럼: 서울: 서머셋펠
리스.
- 토지주택연구원, 2017. 「북한 토지주택 리뷰」, vol1(1): 9~35의 내용을 재정리
- 통일부, 2017,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평화와 변영의 한반도”, 서울.
- KIEP 북경사무소,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20(11).

[인터넷 자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http://www.bukbang.go.kr/>)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7.9.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이란?”, 통일한국,
<http://unikorea21.com/?p=14203>.
- 연합뉴스, 2014.11.10. “한중 FTA 타결 주요내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0/0200000000AKR20141110170900003.HTML>)
- 한국무역협회, 2017.12.20., “中, 한중산업단지 3개 건설 예정”,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5/index.jsp?sCmd=VIEW_CHINA&nPostIndex=16328)
- 이복자, 2016.7.26., “한중 후이저우 산업협력단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1170\)0](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1170)0))

정책연구 2018-1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8년 7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33-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